

해외 ICT 표준화 동향

2016. 3

2nd Week

목 차

■ 본문

1. IoT 표준 공동 개발을 위한 OCF 컨소시엄 결성
2. 중국 MIIT, 2020년까지 5G 상용화 추진 발표
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

게시물 보기 : TTA 홈페이지 ▷ 자료마당 ▷ TTA간행물 ▷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

1. IoT 표준 공동 개발을 위한 OCF 컨소시엄 결성

(Open Connectivity Foundation Brings Massive Scale to IoT Ecosystem)

보도날짜 2016.02.19

출 처 OIC

사 이 트 <http://openconnectivity.org/news/open-connectivity-foundation-brings-massive-scale-to-iot-ecosystem>

- 2016년 2월 19일, IoT 분야의 관련 업체인 '삼성(Samsung), ARRIS, CableLabs, 시스코(Cisco), Electrolux, GE Digital, 인텔(Intel), 마이크로소프트(MS), 퀄컴(Qualcomm)'은 IoT 표준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오픈 커넥티비티 재단(OCF, Open Connectivity Foundation)¹⁾을 신설함
 - OCF는 IoT 솔루션의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'실리콘, 소프트웨어, 플랫폼, 완제품' 개발 기업과 함께 기존 오픈 인터커넥트 컨소시엄(Open Interconnect Consortium)을 통합하여 결성한 것으로, IoT 표준을 통합하여 함께 작동이 가능한 각종 IoT 솔루션 및 기기들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임
 - 이는 ICT 업체들이 과거에는 표준기술을 독점하고 IoT 분야를 주도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위한 개방형 정책으로 전환된 것을 보여줌
- OCF에서의 업계 협력은 미래 글로벌 IoT 분야의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, IoT 산업 혁신의 가속화와 공개된 IoT 상호운용성 표준을 통한 솔루션 개발을 촉진할 것임
 - OCF는 수많은 커넥티드 기기(가전제품, 휴대폰, 컴퓨터, 산업 장비 등)가 제조업체, 운영 시스템, 칩셋에 상관없이 서로 통신하는 것을 희망하며, 개인 영세업자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OCF 표준을 적용하여 IoT 기기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
 - 삼성 조성환 부사장은 OIC가 그동안 IoT 기기의 표준 규격 개발과, 오픈소스의 참조 구현으로써 아이오티비티(IoTivity)를 개발해왔다면 신설된 OCF가 IoT 표준과 코드를 개발하는 가장 다양한 글로벌 조직이 될 것이라 언급함

1) OCF(Open Connectivity Foundation) : 수십 억의 커넥티드 기기(기기, 휴대폰, 컴퓨터, 센서 등)는 제조업체나 운영 시스템, 칩셋, 물리적 전송 등에 관계없이 서로 통신할 수 있어야 하는데, OCF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을 제정하고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후원하며, 소비자와 기업, 산업에 안전한 상호운용성을 약속함 [출처: www.openconnectivity.org]

2. 중국 MIIT, 2020년까지 5G 상용화 추진 발표

보도날짜 2016.02.29

출 처 Cti포럼

사 이 트 <http://www.ctiforum.com/news/guonei/476819.html>

- 2016년 2월 29일, 중국 공업정보화부(MIIT)는 5G기술 연구개발(R&D) 실험 착수를 공식 발표함으로써, 중국 5G기술이 연구개발 및 표준 제정단계에 진입하여 5G 상용화의 토대가 마련됨
 - 5G 연구개발은 핵심기술 테스트, 기술 솔루션 검증, 시스템 검증의 3단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며, 2020년까지 5G를 정식 상용화할 예정임
 - MIIT 수석엔지니어인 장펑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중국의 5G 연구개발 작업 수행을 결정했으며, 국내외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함
 - 또한, 기업, 대학, 과학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IMT-2020(5G) 추진팀을 설립하고, 5G 요구사항, 기술, 스펙트럼, 표준 등의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며, 5G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발전을 촉진을 위해 국내외 기업이 협력하여 5G 국제표준을 제정할 것이라 언급함
- 중국의 '2020년 상용화 계획'은 ITU의 5G 표준화 흐름에 맞추어 진행될 것으로, 올해 5G 표준이 제정될 것임을 예측함
 - 2015년 10월, ITU WRC(세계전파통신회의)에서 5G 결의안을 통과시키고, 5G 개발과 관련한 "IMT-2020" 로드맵을 공식화하였음. 이에, ITU는 2017년까지 5G 기술 솔루션을 마련하고, 2020년까지 5G 표준화 작업을 완성할 계획임
 - 한편, 현재 유럽, 미국, 일본, 한국, 중국의 통신 관련 사업자는 5G 예비 연구 및 테스트를 시작하였고 5G 네트워크 표준 제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임
 - 최근 개최된 MWC 2016(Mobile World Congress 2016)에서는 중국 기업인 ZTE와 화웨이 등은 5G 고주파 통신 시제품을 발표하여, 10Gbps 이상의 높은 전송속도와 빔 트래킹(beam-tracking) 등 주요 5G 기술을 시연함으로써 중국 5G 기술의 발전을 입증함